

[현장 & 현장 사람들 4: 대구대학교 다문화정책연구소 김연희 소장]

한민족 다문화: 동질적인 토대 위에서 극복해야 할 차이

대담: 김연희*, 정리: 정유리**

대구대학교 다문화정책연구소 김연희 소장님을 찾아뵙기 전, 북한이탈주민 연구자로서의 소장님의 업적과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기사를 검색해보았다. 탈북자와 북한이라는 검색어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기사는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 세계 최하위권¹’, ‘북한 1인당 국민소득 20년 전 보다 더 떨어져²’, ‘북한도 신상털기?...탈북자 비난 공세³’, ‘연평도 포격 4주기 앞두고 북한 잇단 해상도발⁴’과 같은 기사였다.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라는 용어는 여전히 생소하고, 낯설게만 느껴졌다.

김연희 소장님은 현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자 대구대학교 다문화정책연구소 소장으로서 다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오늘 인터뷰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에 관한 이야기로 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생각과 북한 방문 소감을 연구자로서의 측면과 평범한 한 한국인으로서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였다.⁵

1 스포츠 조선, 2014년 11월 06일자 기사

2 경향 비즈앤라이프, 2014년 11월 06일자 기사

3 국민일보, 2014년 11월 06일자 기사

4 뉴스와이, 2014년 11월 06일자 기사

5 이 글은 2014년 11월 6일 김연희 소장님과의 인터뷰 내용을 일부 수정·정리한 것이다.

*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사회복지학, ckim105578@hanmail.net

** 대구대, 사회교육학과 박사과정, jeongyuri@daegu.ac.kr

캄보디아의 난민과 북한을 이탈한 주민들

김: 정신보건의 원래 제 전공인데 미국에서 동남아 난민들과 일을 했어요. 1975년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에서 여러 가지 참극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상당수가 난민으로 미국에 많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 중 대다수는 정신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를 겪고 있었고, 정신보건센터에서 저는 그들을 위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 북한이탈주민들이 있었고, 그들이 난민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거예요. 생사를 걸고 넘어왔고, 여러가지 많은 외상적인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또 한민족이라고는 하지만 새로운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그러한 것들을 특히나 어렵게 하는 것이 심리적인 장애라는 것에 있어서, 저는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북한이탈주민들은 왜 그런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죠. 제가 미국에서 크메르루즈 피해자들이 겪은 잔혹함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들을 위해 했던 여러 가지 치료방법들을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접목하여 그들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다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나 스스로도 외관상 보여지는 소수자의 이주민으로서 살았고, 이민 첫 세대로서의 저의 삶의 경험과 구조적으로 갖는 차별, 혹은 매일매일의 일상속에서 겪는 스트레스, 내 자녀들이 사회에서 소수자의 위치에서 산다는 것이 주는 부당함 이런 것들로부터 사회를 변화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또 사회복지서비스가 문화적으로 조금 더 민감해야 한다고 비이주자들에게 교육했던 사람이었기에 당연히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연구자의 관심은 자기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두려움, 용기 그리고 설렘

김: 너무 흥분되고, 북한이탈주민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그리고 한국인으로서는 너무나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사실 가기 전에 조금 불안하기도 했어

요. 근데 불안한 마음이 5%, 가야겠다는 마음이 95%였고, 나는 괜찮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북한이탈주민을 연구하는 사람이기에 막연하게 북한을 가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도대체 이분들은 어떻게, 어디서 왔나. 그런데 기회가 생겼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확장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북한을 가게 되었어요. 제가 가기 2주 전에 플로리다에 있는 사람이 억류되기도 했지만 나진선봉에 국경을 통과할 때 큰 모자를 쓴 군인들을 보고 콩닥콩닥한 이후에는 한 번도 두렵다거나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 감격스러웠어요. 이런 기회가 생겼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건 비겁한 일인 것 같았어요.



북한을 방문한 대구대학교 다문화정책연구소
김연희 소장

낮설지만 익숙한 곳

김: 북한은 시각적으로 매우 달랐어요. 이른 새벽 대동강변을 걷는데 도로변의 잔디를 여자 분들이 앉아서 가위로 자르고, 페트병으로 물을 주고 있었어요. 북한 상황이 굉장히 나쁜건 사실이에요. GDP가 한국의 3.6%라나?⁶ 아직도 기아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고, 어려운 흔적도 많이 보여요. 도로 포장률도 낮고, 북한에서 나름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나진경제특구도 중국에서 포장해준 연결에서 나진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포장이라고 하더라고요. 평양도 차로 한 20분쯤 나가니 다 비포

6 지난해 북한의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854달러(약 91만4000원)로 남한의 1976년(870달러) 수준과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남한의 1인당 명목 GDP(2만3838달러)와 비교하면 3.6% 수준이다(현대경제연구원, 2014, 2013년 북한 GDP 추정과 남북한의 경제·사회상 비교: 1인당 명목 GDP 854달러, 남한의 1970년대 수준, 경제주평, 14-11호(582호)).

장이었어요. 아직 우마차가 다니고, 자전거에는 우리나라의 자동차처럼 라이선스 번호가 있는데 자전거만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 형편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는, 일상에서 보는 사람들이 거기도 다 똑같이 있더라고요. 자녀에 대한 애뜻한 마음이 있는 아버지, 여섯 살짜리 딸이 말을 안들어서 속이 상하다든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데 내가 겪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들이 많았어요. 성인이 됐지만 아직은 어려워지기만한 자식들을 위해서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든지 그런 우리 일상에서 볼만하고 들을만한 이야기를 열차에서도 듣고, 짐을 검사하는 세관원한테도 듣고, 또 거기서 우리를 안내하고 나뭇의 감시기능도 하는 소위 말하는 지도원이라는 사람들에게서도 들으니 내가 북한을 갈 때 가졌던 공포심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시혜의 대상일거라고 느꼈던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또 어떤 맥락에서 어떤 상황에서 만나는지가 얼마나 다른가라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어떤 분은 각 도마다 도민들이 갖은 어떤 특성을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함경북도에 사는 사람은 이전투구(泥田鬪狗)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표현을 알거든요.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와 같다. 굉장히 도발적이고 그런. 나도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났고, 저와 비슷한 연배의 그분과 이야기를 하다보니 너무 친숙한 느낌이 드는거예요. 같은 연배라서 삶에서의 발달 단계상 비슷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는 제 고향이 경기도라고 하니 경기도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성격이 온화하다고 하더라고요. 한반도를 반으로 딱 접으면 함경도랑 경상도 사람들이 비슷하다고도 하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오랜만에 만난 내 연배의 판 동네에서 온 사람을 만나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감춰진 진실 속에 왜곡된 인식

김: 신문이든 방송이든 미디어를 통해 보여지는 짧게 짧게 캡처된 북한에 대한 이미지들은 상당히 우리들한테 왜곡된 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일상도 아주 짧게 잘라서 보면 우리와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왜곡되어 전달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이미 반공이라든지 북한의 위협에 대한 그런 담론이 인정하든 안하든 늘 우리의 머릿속 뒤편에 있는데 그 속에서 사람들을 만난거예요. 그 사람들은 체온도 있고, 훈훈한 가슴도 있고, 하다못해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온 제가 왔을 때 환영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라 제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미디어를 통해 필터 된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들을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들이거나 아니면 독재자에게 잡혀사는 무기력한 사람들이라든지 기아나 인신매매 같은 거잖아요. 또 제가 평소에 만난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처참함이나 생사를 오갔던 경험, 남한에서 부적응과 같은 또 다른 희생자로서의 스토리가 굉장히 지배적이잖아요. 굉장히 균형이 깨어진 권력적인 역할 안에서 만날 때,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이미 있는 고정관념이 더욱 강화될 수 있고, 너무 한쪽으로 편향된 인식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북한 사람들은 이렇다라는 것도 한국에 와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선입견을 만드는데 좋지 않은 기여를 많이 한 것 같고요.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의 대표성을 갖는 표본도 아닌데 말이죠. 어떠한 인식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옳지가 않잖아요. 정확하게 아니니까요.

우리 모두 조금 낯선 사람들⁷

김: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왔을 때는 우리가 호스트, 주류가 되잖아요. 그들은 한국에서 0.01% 정도? 겨우 25,000명이니까요⁸.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은 북한의 대표성을 갖는 것도 아니고요. 함경북도에서 80~90%가 오니까요. 근데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라든지 주류들과 관계하는 양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가 그 곳에 가게되니 제가 손님이

7 본 제목은 한국사회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이주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또한 타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다문화사회가 지향하는 공존의 의미를 실현시키고자 한 이주여성인권포럼의 '우리 모두 조금 낯선 사람들'의 책 제목을 차용한 것이다(이주여성인권포럼, 2013, 5월의 봄).

8 2014년 11월 말 기준 지역별 북한이탈주민 거주자는 25,310명이다(통일부: <http://unikorea.go.kr>).

되고, 그들이 주인이 된거죠. 그럴 때 그 역학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계 양식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저 또한 이민자의 경험을 하고, 문화적소수자로 살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 제가 주류가 되니까 또 저의 시각과 태도가 바뀐다는걸 느낀 적이 있어요. 어떤 사회 안에서 접하는 위치가 달라졌을 때 사회적 이슈를 보는 시각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 사람을 만나는가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우리를 보는 시선이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경험한 것과 똑같아요. 해외동포인 저를 보고 “외국생활해서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라는 말은 그 사람들이 배운 세뇌 교육일 것 같아요. 미국에서 온 자기나라 사람을 보고 “외국생활에 고생이 많으셨죠?”라고 하는 걸 보면 그 머리 한켠에 외국에서는 고생을 한다 뭐 그런 생각이 있었나봐요. 솔직히 속으로는 놀라면서도 동시에 울컥하고 감격했어요. 멀리 나갔던 사람을 안쓰럽게 생각하는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통해서 주입된 편견이나 고정관념 같은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듯이 그들도 남한사람을 볼 때 두려움의 대상일 수도 있고, 미국의 앞잡이로 볼 수도 있고, 복침을 했던 사람으로도 볼 수도 있고, 위협한 존재라든지 돈만 아는? 그래서 서로 자꾸 만나야 겠다는 걸, 어떤 방식으로든 자꾸 만나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 대 사람의 만남이 자꾸 이루어져야 마음의 벽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서독도 통일을 이루기 전까지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대요. 그리고 서독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경제적·교육적 지원 등의 교류가 있었고, 통일 이후에 결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오고가며 배우는 과정을 통해 동독 지원의 재건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대요. 그래서 저는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정부가 하기보다 지자체 차원에서든 아니면 학교 대 학교의 차원에서든 그런 교류가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되어야 60년간의 분단이 가져온 이질성이라든지, 담을 낮추는데 있어서라든지 그리고 통일이 된다면 그때 올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혹은 제도적인 차이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정치적인 생각보다는 생활 안에서 그런 교류가 있다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역할

김: 북중 국경선에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가 있어요. 다양한 경제 방법으로 북한의 경제적 개발을 위해 와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NGO단체도 있었고, 한 샌프란시스코 교포는 북한의 피폐해진 농촌을 살리기 위한 자연농법을 전하고자 그곳에 정착했고, 뉴질랜드에서 온 미용사 부부는 장애인 시설을 지원하기도 했으며, 캐나다의 치과 의사들이 구강진료와 같은 의료지원을 돕고, 미국에서 전혀 다른 일을 했던 한분은 고용을 창출하고 운영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노동자들의 인권보호나 민주사회가 가지고 있는 주요 원칙·가치 등을 전하고자 신발공장을 운영하는 분도 있었어요. 캐나다에서 온 패션디자이너는 비타민 나무를 심어 황폐해진 산과 주민들의 영양을 보살피기 위해 애쓰고 있었고, 저 또한 유치원이나 고아원의 건물 개축과 급식 지원 또는 의료지원을 돕고 아이들의 영양을 지켜주고자 갔던 것이구요. 북한을 지원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어요. 큰 축에서는 경제개발과 인간존엄의 관계양식이 있을 거구요. 인생의 이모작을 나의 삶의 안녕과 편안함을 포기하면서까지 통일과 북한 개발을 위해 쓰고자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좋았어요. 그래서 통일과 관련해서 남북한 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특히나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을 때,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역할이 통일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재중동포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또 도시가 곧 교회라는 신념하에 도시를 정화하고, 피폐화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광장, 박물관, 페스티벌 등의 요소를 만들어주는 건축학자를 보며 세상을 좀 더 살만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음에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사

회가 변화된다는 것도 느꼈어요.

우리의 역할

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꼭 교포가 아니더라도 우리 학생들도 글로벌한 시각을 갖게 된다면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자신들이 세계 속에서 어디쯤 있는 것인지, 또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지와 같은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한국에서 3~4시간 떨어진 곳에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더 경제적 사정이 못한 북한을 보며, 왜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관심한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기본적으로는 인류애적인 입장에서 필요한 거고, 바로 몇 시간 떨어진 곳에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 삶에 긴밀한 영향을 미치는 곳이기도 한 곳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추동 세력 중의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세상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확장될 수도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교 역할로서의 재중동포의 역할

김: 제가 부지불식간 형성된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재중동포한테도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만나는 재중동포들의 대부분은 공장, 건설현장, 식당에서 볼 수 있잖아요. 소위 한국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하는 분들로서 자주 만나게 되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돈을 벌기 위해 온 사람들, 또는 불법체류하는 사람들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북한에 가서, 통일에 정말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사람들이 재중동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은 북한과 문화적으로도 근접해 있고 언어도 가능하고, 또 북한과 중국 간의 외교적 관계가 혈맹관계이기에도 이동 또한 훨씬 자유롭고요. 그래서 통일에 있어서 다른 해외동포들이 할 수 없는 남한이 하기에든 아직은 어려운 그런 귀중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 한국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만났을 때 참 다르다는 것을 배웠고, 그래서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어요.

시나브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김: 북한에서는 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0~15분 달리고 나면 초소가 있었고 통행증을 보여주어야만 했어요.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는 했지만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분명하게 느껴졌어요. 나진선봉에 묵은 호텔은 지은 지 1년 반 밖에는 되지 않았지만 세 팀 정도의 손님밖에 없었고요. 북한을 향한 경제제지로 관광객이 10분의 1은 줄었다고 하더군요. 줄어버린 관광객 수뿐만 아니라 그만큼 무역이나 경제적 관계도 제한되었고, 올 여름에도 가뭄이 심해 기아와 식량부족이 심각할거라고 하더군요. 그들에게 있어서 타결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들의 입장에서 해외동포들이 다시 들어와서 인도적 지원과 경제개발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그런게 큰 것 같아요. 나진선봉지역에 갔을 때, 지도원의 말이 나진항을 경제적 전략지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이 지어줬대요. 항만 2개를 지어주고선 그 대가로 50년간의 임차권을 받아갔고요. 그런데 2~3주 전에 남한의 코레일, 현대, 포스코가 합작을 해서 러시아의 임차권 반을 샀다며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기쁘다는 식으로요. “그래도 우리끼리 하는게 낫지요” 그러더라고요. 북한의 입장에서 러시아나 중국이 혈맹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잠식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경계하고 남북 간의 협력을 더 선호하는 것처럼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놀랐어요. 두 번이나 현대와 코레일이 왔다 갔었다라고 말하는게 말이에요. 마치 자기 나라 기업이 왔다 간 것처럼 말이죠. 그러고는 “자꾸 이렇게 고립되어 살기가 참 힘들메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돌아오기 마지막 날 평양에서 만난 분은 해외동포들이 조국에 돌아와서 뭔가 사업을 하고 그러는데 일이 만만찮다는 걸 깨닫고 힘들어하고 불만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어떤 분은 차라리 아프리카에 가

서 도와주는게 낫겠다라는 식의 말을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이 제발 그러지 말고 인내를 갖고 기다리고 지속적으로 조국을 위해서 일 해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니 그 변화가 조금 느릴지라도 조금 참고 인내해 달라고요. 그리고 조국에 필요한 그런 일들을 꼭 좀 계속해 달라고요. 그말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어요. 그 분이 지원이 필요한 곳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도 그 체제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경직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그리고 그 변화가 매우 느리게 오겠지만 조국의 일을 포기하지 말고, 남한으로 부터든 해외동포로 부터든 북한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것들이 지속되지 못함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떨어지는 물에 바위가 파이듯 그런 변화를 지원하고 있었어요.

막연하지만 가능한 열망

김: 북한 사람들은 위협하다거나 북한은 지지리 못살아서 경제적 부담이 될까라거나 아니면 사회주의 체제에서 오래 살아서 우리와는 굉장히 이질적인 존재라는 점만 부각된다면 그 누구도 북한 사람과 만나고, 사귀고, 통일하고 싶은 열망은 없을거예요. 그렇지만 그 곳 또한 우리와 같은 정서를 공유하는 똑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임을 알게 된다면, 그 그림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북한을 가고, 사람을 만나면서 통일에 대한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가 많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통일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열차를 타고 평양에 들어가기 위한 수속과정에서 만난 두 분이 “내 생전에 통일이 될라나 모르겠어요”라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고, 통일이 되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북한이탈주민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바라보는 동족애라는 것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생각에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또 호텔에서 청소하는 분을 만났는데 그 분은 제 속옷이

그냥 화장실에 걸려있으니 밖에 나가 햇빛에서 말려서 가져오신 거예요. 잘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표현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인간 애라든지 동포애라든지 민족주의적인 연대감 그런 것들이 정말 가슴 뽐뽐하게 만들었어요. 비록 체제가 주는 어떤 쉽게 무너지지 않을 담이라는 것이 있지만 두 가지 모두가 진실일 것 같아요. 저 또한 두려움이라는 것이 더 부각된 북한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정말 반가운 놀람이었어요. 예상치 않았던 것을 발견했고, 놀라웠고, 조금 더 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한민족 다문화: 동질적인 토대 위에서 극복해야 할 차이

김: 그동안 한국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세우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질적인 것이라는 부분이 많이 강조되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이질적인 부분이 있을거예요. 그런데 동질성에 대한 인식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동질적인 것에 대한 토대 위에서 그 차이를 극복하는 여러 가지 노력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나치게 이질적임을 강조하는건 통일의 걸림돌이 될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무조건 동질적이라고 착각해서는 안되는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맥락 안에서 그리고 조금 더 큰 그림 안에서 그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위치에 있다는 조금 더 입체적인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고, 인식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또 북한이탈주민들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 우리는 시혜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좋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을 주로 시혜의 대상으로 봐왔던 것에 대해 반성하고, 그들을 능동적인 자신의 에이전시(agency)가 있는 사람들로 봐야겠다는 것과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책은 그런 에이전시가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역차별이라는 소리를 듣기까지 과잉지원과 온정주의적인 접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에이전시를 발휘시키고, 원래

거기서 가졌던 주인 된 자로서의 당당함이나 자율적인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어떻게 찾게 할까라는 것에 대한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을 더 느낄 수 있었어요. “북한 사람들은 주로 이래요.”, 혹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렇게 수동적이예요.”라든지 “근로 의식이 강하지 않아요.”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라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동질적인 것에 대한 토대 위에서 그 차이를 극복하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어요.

[북한 방문 사진]



평성중등학교 방문



남선봉지역 병원 방문



남선봉지역 유치원 방문



열차에서 본 북한 풍경



평양 방문



평양 시가지